

崔 炳 睦*
朴 丙 台*

子女規模에 관한 態度와 行爲分析

-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現存 및 希望子女數別 將來 希望子女數 分布
 - III. 婦人의 特性別 將來 希望子女數 選好
 - IV. 結 論
-

I. 問題의 提起

態度란 人間의 心理속에 存在하고 있는 어떤 事物에 대한 見解로 볼 수 있다. 「알포트」(Gorden W. Allport, 1935)에 의하면 “態度란 經驗을 통하여 形成된 心理的 準備狀態로서 모든 주어진 事物이나 環境에 대한 個人의 反應을 積極的으로 支配하는 구실을 한다”고 했다. 따라서 人間은 根本的으로 어떤 對象에 대해 表明한 自己의 態度를 好意的 또는 非好意的 方法으로 계속해서 反應하는 性向을 갖게 되며, 態度와 實際行動이 相互 密接히 關聯된다는 假定을 할 수 있다(Bray, 1950 ; Linn, 1965 ; Roheach & Mezei, 1966 ; Smith & Dixon, 1968).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婦人의 希望子女數는 곧 家族크기에 대한 婦人의 態度를 表明한 것으로 볼 수 있고, 現存子女數는 家族規模에 대한 行爲次元으로 볼 수 있다. 家族크기에 대한 婦人의 子女選好態度가 意味하는 바는 家族規模를 줄이려는 강력한 意志의 表現으로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 婦人出產行爲의 重要한 要因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婦人의 子女數選好態度는 우리나라 婦人들의 家族計劃實踐行爲와 出產率 趨勢豫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希望子女數는 어느 면에서 政府家族計劃事業實績評價의 尺度가 될 수도 있다.

本研究에서는 主로 子女規模의 態度와 出產行爲間에 問題로 希望子女數와 現存子女數의 差異에 따라 앞으로의 子女希望與否를 人口學的 變數, 社會·經濟的 變數, 家族計劃變數, 態度變數에 따라 差異가 어떻게 다르며, 왜 다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우리나라 可妊 婦人의 子女出產行爲가 態度的인 次元(希望子女數)과 行爲的인 次元(現存子女數)에서 어떤 差異를 보이는가를 糾明하는데 두었다.

分析資料는 世界出產力調査의 일환으로 實施된 1974년 韓國出產力調査資料를 使用했다. 分

* 家族計劃研究院 研究員.

析對象은 調査當時 15~19세의 有配偶可妊婦人 4,054명이었다 (現在 妊娠中인 婦人은 包含하고 對象婦人中에 希望子女數 質問에 모른다 또는 神의 뜻, 運命등으로 應答한 婦人除外). 이는 本來 調査된 全體既婚婦人 5,430명의 약 75퍼센트에 해당한다.

分析은

- 1) 希望子女數가 現存子女數와 같거나 적은 경우(Excess Fertility Group),
- 2) 希望子女數가 現存子女數보다 큰 경우(Non-Excess Fertility Group)로 나누어 앞으로 子女를 더 원하는 婦人層과 원하지 않는 婦人에 대하여 人口學的 變數(10개), 社會·經濟的 變數(9개), 家族計劃變數(4개), 態度變數(6개)를 二元分析(Bivariate Analysis)시켰다.

現在 世界的으로 子女數 選好에 관한 研究들은 人口學에서 관심이 增大되고 있다. 그 理由는 아직도 이 主題에 대해 希望家族規模의 傾向과 差異의 決定要素를 알아내는 問題와 이에 대한 測定問題에서 많은 論難의 餘地가 있기 때문이다(Coombs, et al., 1975; Ryder, 1979; Freedman, et al., 1974; Pullum, 1980; Kendall, 1979; Shah & Palmore, 1979) 아무튼 本分析結果를 통하여 우리나라 婦人의 出産에 대한 보다 나은 理解와 婦人의 出産에 대한 價値觀, 특히 한 社會의 家族 크기에 대한 規範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現存 및 希望子女數別 將來 希望子女數 分布

여기서 使用한 希望子女數에 대한 概念은 婦人의 個人事情으로써 夫婦의 現在 經濟的인 與件을 고려해서 갖고 싶은 子女數를 의미한다.¹⁾ 즉, 子女規模에 대한 一般的 실정을 고려한 一般的인 理想的規模(Generalized Ideal Size)가 아니라 個人事情을 勘案한 個人的인 理想的 規模(Personal Ideal Size) 概念을 따른 것이다. 1974년 韓國出産力調査에서 婦人의 子女規模에 대한 情報를 蒐集하기 위하여 使用된 質問項目은 “婦人께서는 子女를 마음대로 選擇하여 낳을 수 있다면, 一生동안 몇명 정도의 아기를 낳으시겠습니까?”였다.

이 質問에 따른 應答結果를 實際子女數와 比較해 보면 表 1과 같다. 現在 結婚中인 婦人들의 希望子女數와 現存子女數는 똑같이 平均 3.2명이었다. 그러나 이를 調査當時 婦人의

1) Robert G. Potter, Jr., "A Critique of the Glass-Grebenik Model for Indirectly Estimating Desired Family Size" *Population Studies*, Vol. 9, 1955/1956, pp. 251-252;

Ronald Freedman, "Norms for Family Size in Underdeveloped Area,"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Vol. 159, 1963, pp. 220-245; Ronald Freedman and Harry Sharp, "Correlates of Values About Ideal Family Size in the Detroit Metropolitan Area," *Population Studies*, Vol. 8 1954/1955, pp. 34-35;

Ronald Freedman, David Goldberg, and Harry Sharp "Ideals About Family Size in the Detroit Metropolitan Area: 1954,"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XXXIII, No. 2, April 1955, pp. 187-197.

Table 1. Average Number of Living Children Achieved and Average Number of Children Desired by Currently Married Women, by Current Age in KNFS, 1974

調査當時 年齡別로 본 有配偶婦人의 平均 現存子女數와 平均 希望子女數의 比較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Total
Actual	0.4	1.0	1.9	3.1	4.0	4.4	4.7	3.2
Desired	2.8	2.8	2.8	3.1	3.4	3.6	3.8	3.2

Source: KNF-74, pp.102,106 Table 49,51; Cho Lee Jay, "Fertility Preference in Five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and Digest*, Vol. 4, No. 1, 1978 p. 4.

年齡別로 보면 相互間에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3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선 希望子女數 規模가 現存子女數보다 컸으나 나이가 많은 층에선 反對現狀을 보이고 있다. 제일 나이 많은 층에서 實際子女數와 希望子女數는 約 1명의 差異를 갖고 있다. 그리고 調査當時 婦人의 年齡이 많을수록 希望 및 現存子女數 規模가 커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나이 많은 층에서 이미 갖고 있는 子女數에 대해 自己 合理化를 시키려는 意圖가 應答時에 強하게 作用한 때문이거나³⁾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 導入時期로 보아 젊은 층 婦人에 비해 나이 많은 층은 少子女 規範이 확고하게 形成되어 있지 못한 때문으로 생각된다³⁾(表 4의 年齡別 希望子女數 規模에서 보더라도 30세 미만의 婦人들은 2.8명이었으나 30~39歲, 40~49歲 婦人들은 각각 3.3명, 3.7명으로 나타났다).

分析에 앞서 本分析에서 使用될 希望 및 現存子女數規模間에 將來希望子女與否에 따른 應答을 가지고 子女規模에 대한 態度的 次元과 行爲的 次元의 一致程度를 아래 表에서 알아 보았다. 그 結果 83퍼센트의 婦人이 調査當時 子女規模의 態度和 行爲間에 一致性을 나타내고 17퍼센트는 不一致된 態度를 보여주고 있다.

2) Kim, Nam Il and Byoung Mohk Choi, "Korean Preferences for Children, By Number and Sex, and Contraceptive Use: A Multivariate Analysis," Regional Seminar for Selected ESCAP Countries, Bangkok, 18-22 August 1980, (mimeo); James W. Brackett, "Family Planning in Four Latin American Countries-Knowledge, Use and Unmet Need: Some Findings from the World Fertility Survey,"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and Digest*, Vol. 4, No. 4, 1978, p.120.

3) 우리나라의 希望(또는 理想)子女數規模는 1965년 3.9명에서 1971년 3.7명, 1974년 3.2명으로 점차적인 減소를 하였다. 또한 1965, 1968, 1971년 出産力 調査에서 現在結婚狀態에 있는 婦人들로 4명, 또는 그 이상의 子女가 理想的이라고 생각한 婦人은 52~60%에 달했으나 1973년에는 32%로 줄어들었다. 이와는 달리 1974년 조사에서 2~3명의 子女가 理想的으로 생각한 것은 65%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67년 조사에서 2명의 子女를 가진 婦人들은 15%가 더 이상 子女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1974년 조사에선 66%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67년과 1974년 조사에서 現在結婚中인 婦人全體를 놓고 볼 때 더 이상 子女를 원치 않는 婦人들은 각각 55%, 72%였다.

Consistent Responses	
Desired \leq Living, want no more	57.6%
Desired $>$ Living, want more children	25.4%
Total	83.0%
Inconsistent Responses	
Desired \leq Living, want more children	3.9%
Desired $>$ Living, want no more children	13.1%
Total	17.0%

이어서 먼저 希望子女數 對 現存子女數 크기에 따른 앞으로 더 子女를 願하는 婦人과 願하지 않는 婦人의 分布를 表 2에서 보았다. 全體分析對象婦人의 29.3퍼센트가 앞으로 子女를 더 願하고 있고 더 願하지 않는 婦人은 70.7퍼센트였다. 그러나 이를 具體的으로 希望 對 現存子女 크기別로 보면 分布樣相에 差異를 나타낸다. 希望子女數보다 現存子女數가 큰 경우는 거의 모든 婦人들이 더 이상 子女를 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95.5%), 그렇지 않은 경우는 極少數였다(4.5%). 이들 極少數의 婦人들은 일단 問題集團으로 볼 수

Table 2. Distribution of Women Who Want More Children or Want No More Children, by Desired and Living Number of Children in KNFS, 1974.
希望子女數와 現存子女數 規模別 將來子女 希望與否에 따른 婦人의 分布

Desired and Living Number of Children	Wants More	Wants No More	Total(N)
Desired $<$ Living	4.5	95.5	100.0(1,325)
Desired=Living	8.6	91.4	100.0(1,167)
Desired $>$ Living	65.9	34.1	100.0(1,562)

Table 3. Desired vs. Living and Number of Sons
希望子女數 對 現存子女數의 男兒數에 따른 將來子女希望與否
(For Fecund Women Only)

	Wants More	Wants No More	Total(N)
Desired $<$ Living	4.3	95.7	100.0(1,219)
Desired=Living	8.8	91.2	100.0(1,037)
Desired $>$ Living, Son=0	87.6	12.4	100.0(459)
Desired $>$ Living, Son=1	64.7	35.3	100.0(546)
Desired $>$ Living, Son=2+	23.3	76.7	100.0(322)

있다. 反面 希望子女數가 現存子女數보다 컸을 때는 앞으로 子女를 더 願하는 婦人이 약 2/3에 달하고 나머지 1/3은 더 이상 子女를 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具體的으로 보기 위하여 現在可妊狀態에 있는 婦人(現在 妊娠中인 婦人 除外)만을 對象으로 앞으로 婦人의 出産力을 높일 暫定的인 可能性이 內包되어 있는 그룹인 希望子女數가 現存子女數 보다 큰 경우에 現存男兒數에 따라 앞으로 子女를 願하는 與否를 表3에서 알아 보았다(表3 參照). 現存子女중에서 아들이 없는 婦人들은 대부분의 婦人이 앞으로 子女를 더 갖기를 願하고 있었다(87.6%). 그러나 앞으로 子女를 願하는 比率은 아들 1명이 있는 婦人들은 64.7퍼센트, 2명 이상의 아들이 있는 婦人은 23.3퍼센트로 급격히 低下되고 있다. 이는 相對的으로 이들 그룹간에 더 이상 子女를 願하지 않는 婦人의 比率增加를 나타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아들 2명은 가지려고 하는 傳統的인 男兒選好價値觀이 그대로 存續됨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Ⅲ. 婦人의 特性別 將來 希望子女數 選好

婦人의 人口學的, 社會·經濟的, 家族計劃 및 家族規模의 態度에 관한 變數들을 가지고 現在結婚中이고 可妊狀態에 있는 婦人들의 將來子女希望與否別 差異를 現存子女數가 이미 希望子女數를 超過했거나 같은 集團(Excess Fertility Group: EFG)과 (Non-Excess Fertility Group: N-EFG) 希望子女數에 未達한 集團으로 나누어 表4에서 알아 보았다.

우선 現存子女數가 希望子女數를 超過하고 있는 경우를 人口學的 變數에서 보면 子女를 더 이상 願하지 않는 集團은 子女를 더 원하는 集團보다 年齡이 많고, 結婚期間이 길으며, 出生 및 現存子女數, 그리고 現存 男兒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現存男兒의 경우는 더 이상 子女를 願하지 않는 集團이 子女를 더 願하는 集團보다 3배나 많은 數의 아들을 갖고 있다(平均 2.1명 : 0.7명이고 年齡別 男兒數分布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임). 이러한 現象은 希望子女數를 超過했으면서도 子女를 더 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들 集團에서의 現存男兒 및 女兒의 比로 볼때(0.7명 : 2.6명) 앞으로 願하는 子女는 男兒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⁴⁾

反對로 現存子女數가 希望하는 子女數에 未達하고 있는 婦人(Non-Excess Fertility Group: N-EFG)들을 보면 앞으로 子女를 더 願하는 婦人들은 調查當時 年齡 및 結婚期間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더 이상 子女를 원하지 않는 婦人은 平均年齡이 5.4歲나 높고(31.0세 : 25.6세), 結婚期間이 훨씬 길다(9.3년 : 3.5년). 또한 이들 婦人은 子

4) KNFS-74 出産力調査에서 希望男兒數는 1.9명이었고, 希望女兒數는 1.3명이었다. 따라서 婦人들이 希望하는 子女數 規模에 있어 希望男兒는 1.2명이 未達해 있고, 現存女兒數는 希望女兒數를 2배나 능가하고 있는 狀態다.

女를 더 願하는 婦人들보다 이미 더 많은 子女를 갖고 있다(平均 2.7명으로 平均現存子女數에서 1.5명이 더 많다). 이들 希望子女數가 現存子女數에 미달한 集團에서도 역시 平均現存男兒數는 더 이상 子女를 願하는 婦人과 願하지 않는 婦人間에 약 3배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0.5명 : 1.4명). 以上の 人口學的 變數에서 볼 수 있듯이 N-EFG에서 EFG보다 各 變數內에서 將來 希望子女別로 뚜렷한 差異를 갖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EFG는 여기에서 사용된 變數들 만으로는 說明 안되는 다른 變數들의 影響이 더 많이 작용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좀더 상세한 것은 여기에선 試圖되지 않았지만 특히, 이들 集團의 子女를 더 이상 願하지 않는 婦人(全體分析對象의 57.5%에 해당하는 2,333명)에 대한 多變數分析이 앞으로의 具體的인 家族計劃事業展開을 위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社會·經濟的 變數에서 보면 N-EFG은 EFG보다 現在 및 어렸을 때 居住地가 都市地域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教育水準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結果를 보이고 文盲率도 훨씬 낮다. 매스·미디어에 露出되어 있는 程度도 印刷媒體 및 放送媒體 모두에서 N-EFG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現象은 男便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農村보다는 都市地域에 居住하는 比率이 많고, 보다 나은 正式教育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婦人의 經濟活動狀態를 보면 結婚前엔 比率上으로 N-EFG에서 더 많은 參與를 하고 있고 報酬를 現金으로 받고 있으며, Excess Fertility에선 物件이나 無報酬로 일하는 傾向이 있다. 그리고 結婚後 일한 場所를 보면 EFG이 農事나 家內에서 하는 일에 從事하는 比率이 월등히 높다. 이는 우리나라 農村의 경우 대체로 젊은 男子들이 보다 나은 教育施設과 產業施設이 集中되어 있는 都市地域으로 進學, 就業, 그리고 軍入隊 등으로 農村을 離脫하게 되므로 모자라는 일손을 女子들이 參與하게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以上으로 보아 N-EFG은 EFG보다 좀 더 現代化된 集團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差異가 앞으로 子女를 더 願하는 婦人과 願하지 않는 婦人間에는 어떤 變化가 있는지 보았다. 먼저 EFG에서 보면 子女를 더 願하는 婦人들은 더 願하지 않는 婦人들에 비해 現居住地와 어렸을 때에 農村에서 居住한 比率이 컸고, 4/5가 國民學校 以下の 學歷을 갖고 있으며, 매스·미디어 接觸은 新聞의 경우 婦人의 3/4가 전혀 보지 않으며, 반대로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선 절반의 婦인이 매일 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FG도 여기서 使用한 社會·經濟的 變數에선 EFG에서 나타난 傾向과 類似하였다.

세번째로는 家族計劃變數를 가지고 EFG와 N-EFG間的 差異를 보았다. 우선 家族計劃認知狀態를 보고 實際 家族計劃決定行爲가 어떤 結果로 나타났는가를 過去 避妊使用과 現在 避妊使用變數를 통해 測定해 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家族計劃採擇態度決定에 影響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家族計劃普及(Family Planning Outlets)*이 位置한 場所까지의

* 여기서 말하는 家族計劃普及網(Family Planning Outlets)이란 廣義의 뜻으로 家族計劃을 하고

所要時間을 가지고 家族計劃의 接近容易性(Family Planning Accessibility)이 주는 效果를 알아보고있다. 특히 間接的으로는 家族計劃을 必要로 하면서 家族計劃採擇에 관한 意思決定에 心理的 移動性을 갖고 있는 集團(Unmet Group)*을 밝 혀보는데 이들 家族計劃變數를 分析에 導入한 意義가 있다.

家族計劃에 대한 認知率은 모든 그룹에서 97퍼센트 以上으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效果의이든 非效果의이든 避妊方法을 전혀 모르는 婦人은 EFG와 N-EFG의 앞으로 子女를 더 願하는 婦人層에서 높게 나타났다(Excess Fertility Group 3.1% : 0.7%, Non-Excess Fertility Group 2.9% : 1.7%). 過去에 避妊方法을 使用했던 경우는 豫想대로 4개 集團中에서 效果의인 妊避使用率은 EFG의 더 이상 子女를 願하지 않는 婦人들이 제일 높았고(70.3%), N-EFG의 子女를 더 願하는 婦人들은 낮게 나타났다(23.4%)· 이러한 傾向은 現在 避妊使用中인 婦人에서도 마찬가지였다(47.0% : 15.8%).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EFG에서 더 이상 子女를 願치 않으면서 避妊經驗이 없었거나 現在도 避妊을 實踐하고 있지 않은 婦人(各各 24.3%, 47.2%)과 N-EFG에서 더 이상 子女를 願치 않으면서 避妊을 實踐하지 않는 婦人(各各 34.8%, 52.5%)들은 앞으로의 效果의인 家族計劃事業展開에 있어 問題集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問題集團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은 EFG와 N-EFG에서 그들이 表明한 希望子女數가 많건 적건 關係없이 앞으로 子女를 더 願하는 婦人들이다. 이들을 避妊實踐으로 誘導하기 위해서는 이들 問題集團婦人에 대한 特性分析이 좀 더 상세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어서 家族計劃採擇을 接近하기 쉬운 側面에서 婦人의 居住地에서 徒步 및 버스편을 利用***하여 家族計劃普及網이 位置한 곳까지 걸리는 時間에 따라 希望家族規模에 따른 分布를 보았다. EFG와 N-EFG에서 모두 더 이상 子女를 願치 않는 婦人들이 願하는 경우보다 比較的 가까운 거리인 20分 以內에 도달할 수 있는곳에 家族計劃普及網이 位置한 것으로 나타났고, 20分 以上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時間上으로 나타난 分布를 보면 出產力水準에서 제일 큰 問題集團이 될 수 있는 EFG이면서 더 子女를 願하는

자 했을 때 家族計劃에 대한 知識을 얻거나, 藥劑나 器具를 얻거나, 또는 그밖에 도움을 받기 위한 場所를 말한다. 즉, 保健所, 施術處, 藥局들을 總稱한다.

* Unmet Group에 대한 定義를 現在 더 이상 子女를 願하지 않으면서 避妊을 實踐하고 있지 않은 婦人으로 보아 이들을 放任集團으로 表示하고 있다(朴亨鍾, 鄭慶均, 韓達鮮, 李時伯, 어머니회 研究,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74, pp. 167.). 그러나 여기서 使用한 概念은 廣意의 뜻으로 家族計劃實施에 있어 問題集團으로 볼 수 있는 集團을 總稱한다. 즉, 現存子女가 希望子女數規模를 超過했으면서(Excess Fertility Group) 앞으로 더 子女를 願하는 婦人, 앞으로 子女를 더 願하지 않지만 調查當時 家族計劃普及網位置를 모르고 있거나, 避妊實踐을 實施한 적이 없거나 現在도 未實施中인 婦人, 希望子女數가 現存子女數規模에 未達해 있는 婦人들로 앞으로 子女를 더 願하면서 家族計劃普及網에 露出되어 있지 않거나 避妊實施를 望하고 있으면서 人工流產 등에 反對意事를 갖고 있는 婦人, 특히 강한 男兒選好思想을 갖고 있는 婦人들을 일컫는다.

** 家族計劃에 대한 認知率은 한가지 以上의 避妊方法을 알고 있는 婦人으로 計算한 것임.

*** 徒步 및 버스 편을 利用하여 家族計劃普及網을 찾아 가는 것이 83%이고 場所를 모르는 경우가 16

그룹을 제외하고 20分 以內에 家族計劃普及網이 位置한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家族計劃普及網이 居住地에서 가까운 곳에 位置하고 있을 때 婦人이 子女를 더 願하지 않으면 家族計劃普及網에 쉽게 接할 수 있어 家族計劃普及網이 居住地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역시 Unment Group 으로 問題集團이 될 수 있는 家族計劃普及網의 位置조차 모르는 婦人—EFG와 N-EFG에서 子女를 더 願하는 쪽이 큰 分布를 보임—들에게 家族計劃普及網位置를 알려주어 利用케 하므로써 即刻의인 效果는 期待할 수 없을지라도 長期的으로 볼 때 避妊實踐으로 이끌어 들일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態度 및 其他變數에서 EFG와 N-EFG間에 差異를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出產力低下에 寄與하는 것으로 밝혀진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는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一般的인 態度를 보았다. EFG와 N-EFG에서 모두 더 이상 子女를 願치 않는 婦人들이 人工妊娠中絶을 贊成하는것이 強하게 나타났다(42.8% : 52.5%, 39.3% : 45.1%). 그리고 마지막 妊娠을 願하지 않았던 婦人들의 比率는 EFG에서 N-EFG보다 2배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49.6%, 21.6%). 이것은 이미 超過한 子女數에 대한 子女數 抑制態度가 EFG에서 強하게 反映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마지막 子女가 바랐던 子女의 性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避妊失敗로 생겨난 出生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콥즈」(Coombs)의 子女選好尺度에서 보면 全體平均은 4.4*였고, EFG內에선 子女를 더 願하고 원하지않는 集團間에 差異가 없고(양쪽 모두 平均이 4.4), N-EFG 內에선 差異를 약간 갖고 있다(平均이 4.2, 4.5). 「콥즈」의 子女數選好에서 高出產의 意圖를 갖고 있는 選好數 6,7(PN=6+7)로 應答한 婦人의 分布를 보면 EFG에선 兩者間에 별 차이를 안보이나(15.1%, 16.2%), N-EFG에선 차이가 있다(11.8%, 15.4%). 이를 「콥즈」의 性選好尺度에서 보면 全體平均은 5.4였다. EFG의 子女를 더 願하는 集團이 5.5로 제일높고, N-EFG에서 子女를 더 願하는 集團이 5.3으로 약간 낮았다. 그리고 強한 男兒選好를 보이는 性選好 6,7 (PS=6+7)의 分布는 EFG의 子女를 더 願하는 集團에선 약 절반(49.1%)이었고, N-EFG의 子女를 더 願하는 集團에선 제일 적게 나타나서(39.1%) 兩者間에 10퍼센트 포인트의 差異를 갖고 있다. 이상의 「콥즈」의 子女選好尺度**는 子女數나 性選好에서 모두

*였음.

* Clyde H. Coombs, Lolagence C. Coombs and Gray H. McClelland, "Preference Scale for Number and Sex of Children," *Population Studies*, Vol. 29, Part 2, July 1975, pp. 284-285에서 보면 Number Preference 1 (PNI)은 強한 少子女價値觀을 뜻하고 PN7은 強한 多子女價値觀을 의미하며 PN4는 이들 두 극단 값의 중간적인 입장(moderate-size family)을 뜻한다. 그리고 Preference Sex 1 (PS1)은 強한 女兒選好를 뜻하고 PS7은 男兒選好가 強함을 말하고 PS4는 子女性比가 均衡을 이룬 상태를 나타내고 PS5는 약한 男兒選好(mild preference for boys)를 나타낸다.

** Coombs의 子女數選好尺度에서 應答한 것과 希望子女數에서 應答한 것과는 統計的으로 有意하게(46면에 계속)

Table 4. Demographic, Socio-Economic, Family Planning, and Attitude Characteristics (Mean and Percentages) of Currently Married Women(Included Current Pregnant), By Their Desire for Additional Children and Desired Number Compared to Number of Living Children, Korea, 1974
 希望子女數와 比較된 現存子女數 크기에 따른 追加希望子女與否別 有配偶婦人 (現在妊娠包含)의 人口學的, 社會·經濟的, 家族計劃 및 態度變數上的 差異 (平均 및 퍼센트)

Women's Characteristics	Desired ≤ Living		Desired > Living		All Women (N=4,054)
	Wants (N=159)	No More (N=2,333)	Wants (N=1,030)	No More (N=532)	
<u>Demographic Variables</u>					
Current mean age	30.5	34.8	25.6	31.0	33.6
Mean age at 1st marriage	20.5	20.0	21.6	21.2	20.2
Mean of marriage duration (yrs.)	9.4	14.3	3.5	9.3	12.9
Mean number of sons ever born	3.6	4.3	1.2	2.7	3.6
Mean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0.8	2.2	0.6	1.6	1.8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					
Total	3.3	4.0	1.1	2.3	3.2
-30	2.6	2.4	1.0	1.8	1.6
30-39	3.9	4.0	1.7	2.7	3.6
40-49	5.3	5.3	1.8	3.0	5.0
Mean number of living sons					
Total	0.7	2.1	0.5	1.4	1.6
-30	0.6	1.4	0.5	1.1	0.8
30-39	0.7	2.0	0.9	1.7	1.8
40-49	2.3	2.7	0.8	1.5	2.6
Mean number of desired family size					
Total	2.9	3.1	3.0	3.8	3.2
-30	2.5	2.4	2.9	3.4	2.8
30-39	3.3	3.1	3.4	4.1	3.3
40-49	4.3	3.6	4.1	4.5	3.7
Mean number of mothers children					
Total	2.6	2.5	2.5	2.5	2.5
Mean number of mothers- in-law children					
Total	2.3	2.3	2.3	2.3	2.3

Table 4. Continued

Women's Characteristics	Desired \leq Living		Desired $>$ Living		All Women (N=4,054)
	Wants (N=159)	No More (N=2,333)	Wants (N=1,030)	No More (N=532)	
Socio-Economic Variables					
Proportion of type of place of residence:					
City	45.3	49.2	56.5	62.6	52.7
Town	7.5	7.9	7.7	5.4	7.5
Village	47.2	42.9	35.8	32.0	39.8
Proportion of childhood place or residence:					
City	9.5	15.9	20.9	22.5	17.8
Town	5.7	7.7	7.9	7.2	7.6
Village	84.8	76.4	71.2	70.4	74.6
Proportion of level of education					
No school	17.0	20.9	4.6	11.5	15.4
Primary	63.5	54.0	50.5	50.0	53.0
Middle	10.7	14.5	25.2	26.6	18.5
High+	7.5	10.6	19.7	13.0	13.1
Proportion of illiteracy	18.2	18.8	4.9	9.6	14.0
Proportion of partner's childhood residence:					
City	13.8	17.1	23.6	22.5	19.4
Town	6.2	9.3	10.5	10.8	9.7
Village	80.0	73.5	65.9	66.7	70.9
Proportion of partner's level of education:					
No school	10.1	9.6	2.4	5.6	7.3
Primary	42.1	34.6	28.9	28.4	32.6
Middle	22.6	23.6	22.8	21.8	23.1
High	16.4	20.4	32.0	30.8	24.6
College+	8.8	11.9	13.8	13.3	12.5
Proportion of work status before marriage:					
Did not work	37.1	52.5	35.5	46.6	46.8
Paid	23.9	21.4	44.9	32.3	28.9
Paid kind or unpaid	39.0	26.1	19.6	21.1	24.3

Table 4. Continued

Women's Characteristics	Desired \leq Living		Desired $>$ Living		All Women (N=4,054)
	Wants (N=159)	No More (N=2,333)	Wants (N=1,030)	No More (N=2,532)	
Proportion of place of work since married:					
No work since marriage	38.0	37.6	58.5	48.1	44.4
Away from home	10.8	13.9	11.9	13.9	13.2
Farm or at home	51.3	48.5	29.3	38.0	42.4
Proportion of read paper for news					
Every day	9.4	15.1	21.5	17.7	16.9
Fewdays each week	4.4	4.4	6.0	5.3	4.9
Occasionally	19.5	19.6	27.1	21.6	21.8
Never	66.7	60.8	45.4	55.5	56.4
Proportion of radio or TV for news					
Every day	47.2	50.3	58.0	60.2	53.4
Fewdays each week	9.4	9.8	10.2	10.0	9.9
Occasionally	30.2	27.0	20.7	19.2	24.5
Never	13.2	12.9	11.2	10.7	12.2
Family Planning Variables					
Proportion of type of contraceptive method known					
None	3.1	0.7	2.9	1.7	1.5
Inefficient only	0.0	0.0	0.3	0.2	0.1
Efficient	96.9	99.2	96.8	98.1	98.4
Proportion of ever used efficient method					
None	62.9	24.3	70.7	34.8	39.0
Inefficient only	6.3	5.3	5.9	6.6	5.7
Efficient	30.8	70.3	23.4	58.6	55.3
Proportion of type of current method*					
Not using	90.0	47.2	82.7	52.5	57.9
Using inefficient	0.7	5.8	1.6	5.9	4.6
Using efficient	9.3	47.0	15.8	41.6	37.5

Table 4. Continued

Women's Characteristics	Desired \leq Living		Desired $>$ Living		All Women (N=4,054)
	Wants (N=159)	No More (N=2,333)	Wants (N=1,030)	No More (N=532)	
Proportion of how far could go to get information, help, or supplies for FP(min.)					
Do not know of any place	19.6	7.2	22.1	11.7	12.0
1-20 min.	34.5	48.3	41.3	49.9	46.2
20+ min.	45.9	44.5	36.6	38.4	41.8
Attitude and Other Variables					
Proportion of general opinion about abortion					
Approve	42.8	52.5	39.3	45.1	47.8
D/K or not stated	21.4	14.4	25.9	18.8	18.2
Disapprove	35.8	33.1	34.8	36.1	34.0
Proportion of last pregnancy unwanted	—	49.6	—	21.6	44.5
Coombs number preference score					
Mean	4.4	4.4	4.2	4.5	4.4
Proportion 6+7	15.1	16.2	11.8	15.4	14.9
Coombs Sex Preference Score					
Mean	5.5	5.4	5.3	5.4	5.4
Proportion 6+7	49.1	43.7	39.1	43.3	42.8
Proportion of Husbands Birth Order(eldest or only)	50.6	50.4	49.7	49.0	50.0

* Excluded 503 not exposed cases.

EFG이 N-EFG보다 大家族 크기를志向하고 있고 강한 男兒選好態度를 갖고 있으며 특히 男兒選好態度는 앞으로 子女를 더 願할 경우 N-EFG 보다 EFG에서 強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傳統的으로 戶主가 되어 집안의 代를 잇거나 祖上의 祭祀를 지내야 할 位置에 있는 男兒이 獨子이거나 長男일 경우를 보면 分家해가는 과정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EFG와 N-EFG內의 差異는 미미하지만 N-EFG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0.7 : 0.2% Pt.).

(42면에서)

R²=.99의 높은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Kim, Nam Il and Byoung Mohk, Choi, "Korean Preferences for Children, By Number and Sex, and Contraceptive Use: A Multivariate Analysis," Regional Seminar for Selected ESCAP Countries, Bangkok, 18-12 August 1980, mimeo.

III. 結 論

子女規模에 대한 態度的인 次元과 行爲的인 次元을 希望子女數와 現存子女數를 가지고 EFG와 N-EFG로 나누어 이들 集團間的 差異와 各集團內에서 調査當時 將來子女希望與否에 따른 變化를 보았다.

그 結果 子女規模에 대한 態도와 行爲間에 應答은 83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一致性을 보였고 調査當時 우리나라 婦人들의 將來子女를 더 願하는 婦人과 願하지 않는 婦人의 比率은 3:7로 나타났고, 특히 現在 갖고 있는 男兒數에 따라 앞으로 子女를 더 가지겠다고 생각하는 태도나 또는 더 가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FG와 N-EFG中 앞으로 子女를 더 願하는 婦人들은 調査當時 年齡과 結婚期間에 密接한 關係를 갖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現象은 N-EFG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人口學的 變數에선 N-EFG이 EFG보다 將來 子女希望與否에서 뚜렷한 差異를 갖고 있고, 社會·經濟的 變數를 통해 볼 때는 N-EFG이 EFG보다 더 現代化 된 屬性을 가진 集團으로 생각된다. 家族計劃變數를 바탕으로 어느 集團에서 Unmet Need가 강한 集團인가를 보면 N-EFG보다는 EFG 쪽이 強했고 그 중에서도 子女를 앞으로 더 願하는 婦人들이었다.

子女數 抑制態度는 EFG의 子女를 더 이상 願하지 않는 婦人들이 強하게 나타났다(表 4의 避妊實踐의 過去 및 現在分布와 마지막 妊娠不願分布 參照).

Coombs의 子女數選好尺度上으로는 4개 集團이 모두 適正規模의 子女數(Moderate-Size Family)와 약간 강한 男兒選好規模(Mild Preference for Boys)를 上回하고 있다. 특히 高出産意圖는 EFG의 子女를 더 願하지 않는 婦人들이 強했고, 男兒選好思想이 제일 강한 것은 EFG의 子女를 더 願하는 婦人들이었다. 이들 集團에 속한 婦人들은 現存男兒數에서도 1:3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었다.

觀念的으로 意圖하는 子女數規模를 超過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子女를 더 갖기를 바라는 婦人들은 家族計劃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면서도 行爲側面에서 이를 採擇하고 있지 않는 心理的 流動性을 強하게 갖고 있는 婦人들이었다. Unmet Need가 強하게 된 理由는 婦人들이 希望하는 男兒數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男兒選好思想이 이들 婦人들에게 계속적으로 存在한다면 앞으로 出産力低下를 豫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들 Unmet Need가 강한 婦人들의 子女規模에 대해 表明한 態度를 行動變化로 이끄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Unmet Group들을 避妊實踐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고 男兒選好態度를 拂拭시키는 問題로 壓縮시킬 수 있다.

첫째로 避妊實踐으로 誘導하기 위해서는 Elihu Katz의 刺激—反應 및 行動的 態度理論 (Stimulus-Response and Behavioristic Theory)의 측면에서 볼 때 家族計劃의 利用 및 充足接近方法(the uses and gratification approach)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男兒選好態度拂拭對策은 短期的 效果를 위해선 男兒를 더 갖는 대신 父母 自身의 價値를 充足시킬 方法을 開發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長期的 側面에선 父母의 子女觀 自體를 바꿔주는 것이고, 靑少年들의 性役割의 規範, 固定觀念, 正體感에 대한 態度를 敎育을 통해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本研究를 통하여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性選好에 따른, 子女數規模의 態度와 行爲間에 差異가 存在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와 같은 結果를 초래한 것은 여러 要因이 있겠으나 理想子女數의 變化는 經濟狀態나 社會·文化的 制度(Social Institutions) 및 國際政勢의 變動 또는 單純한 그 時代의 潮流에 反應하는 結果로 일어난다는 것이며 家族規模에 대한 態度는 過去로부터 변하여 왔고 앞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平均理想子女數는 終局的인 家族規模의 豫測보다는 現在의 經濟·政治의 與件에 反應하는 尺度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變數들과 관련된 보다 깊은 次元에서의 家族規模에 관한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家族計劃研究院, 1974年 韓國出產力調查: 一次報告書,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1977.
- 金正午, 父母의 子女觀: 그 理論의 分類法의 發展과 問題點(1), *Research Notes*, Vol. 2, No. 14, KIRBS, 1973.
- 朴有鳳, 徐正宇, 車培根, 韓泰烈, 新聞學理論, 博英社, 1974.
- 朴亨鍾, 鄭慶均, 韓達鮮, 李時伯, 어머니회 研究, 서울大 保健大學院, 1974.
- 李滿英, 男兒尊重態度가 家族計劃實踐과 子女構成類型의 分析에 미치는 影響, *Research Notes*, Vol. 3, No. 2, KIRBS, 1974.
- 李相彬, 態度의 構造와 그 相關物, *Research Notes*, Vol. 3, No. 16, KIRBS, 1974.
- 李鎮煥, “性役割社會化의 機制 및 媒介者”, *Research Notes*, Vol. 8, No. 5, KIRBS, 1979.
- 車載浩, 鄭範謨, 李星珍, 韓國의 男兒尊重思想: 社會·文化·心理學의 分析,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5.
- Allport, Gordon W., “Attitudes” in C. Murchison, 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ss., Clark Univ. Press, 1935.
- Brackett, James W., “Family Planning in Four Latin American Countries—Knowledge Use and Unmet Need: Some Findings from the World Fertility Survey”,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and Digest*, Vol. 4, No. 4, Winter 1978.

- Bray, D. W., "The Prediction of Behavior from Two Attitude Scal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5, 1950.
- Cho, Lee-Jay, "Fertility Preferences in Five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and Digest*, Vol. 4, No. 1, 1978.
- Coombs, Lolagene C. "Prospective Fertility and Underlying Preferences: A Longitudinal Study in Taiwan," *Population Studies*, Vol. 33, No. 3, 1979.
- Coombs, Clyde H., Lolagene C. Coombs, and G.H. McClelland, "Preference Scales for Number and Sex of Children," *Population Studies*, Vol. 28, No. 2, 1975.
- Festinger, L., "Behavioral Support for Opinion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28, 1964.
- Fishbein, M., "Attitude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in M. Fishbein, ed., *Readings i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N.Y.: Wiley, 1967.
- Freedman, Ronald, David Goldberg, and Harry Sharp, "Ideals about Family Size in the Detroit Metropolitan Area: 1954"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XXXIV, No. 2, April 1955.
- Freedman, Ronald and Harry Sharp, "Correlates of Values about Ideal Family Size in the Detroit Metropolitan Area," *Population Studies*, Vol. 8, 1954/1955.
- Freedman, Ronald, "Norms for Family Size in Underdeveloped Area,"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II, Vol. 159, 1963.
- Freedman, Ronald, Albert I. Hermalin, and Min-Cheong Chang, "Do Statements about Desired Family Size Predict Fertility? The Case of Taiwan, 1967-1970," *Demography*, Vol. 12, No. 3, 1975.
- Freedman, R., Lolagene C. Coombs, M.C. Chang, and T.H. Sun, "Trends in Fertility, Family Size Preferences, and Practice of Family Planning: 1965-1973,"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5, No. 9, 1974.
- Kantrow, Louise, "Measuring Unwanted Fertility,"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and Digest*, Vol. 4, No. 3, 1978.
- Kendall, Maurice, "The World Fertility Survey: Current Status and Findings," *Population Report*, Vol. 7, No. 4, 1979.
- Kim, Nam II and Byoung Mohk Choi, "Korean Preferences for Children, by Number and Sex, and Contraceptive Use: A Multivariate Analysis." Regional Seminar for Selected ESCAP Countries, 18-22 August 1980, Bangkok, Mimeo.
- Knodel, John and Visid Prachuabmoh, "Desired Family Size in Thailand: Are the Responses Meaningful?," *Demography*, Vol. 19, No. 4, 1973.
- Linn, L.S., "Verbal Attitudes and Overt Behavior: A Study of Racial Discrimination," *Social*

- Forces*, Vol. 44, 1965.
- McGuire, W.J., "The Nature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G. Lindzey and E. Aronson, ed.,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3, Reading, Mass.: Addison Wesley, 1969.
- Mosena, Patricia Wimberley and John Stoeckel, "The Impact of Desired Family Size Upon Family Planning Practices in Rural East Pakista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3, No. 3, 1971.
- Palmore, James A., and Mercedes B. Concepcion, "Desired Family Size and Contraceptive Use in Pakistan,"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5, No. 4, 1979.
- Potter, Robert G. Jr., "A Critique of the Glass-Grebenik Model for Indirectly Estimating Desired Family Size," *Population Studies*, Vol. 9, 1955—1956.
- Pullum, Thomas W., *An Illustrative Analysis of Fertility Preference in Sri Lanka*, London: WFS Technical Report 1202.
- Rokeach, M., and L. Mezei, "Race and Shared Belief as Factors in Social Choice," *Science*, Vol. 151, 1966.
- Ryder, Norman B., "Consistency of Reporting Fertility Planning Status,"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10, No. 4, 1979.
- Shah, Nasra M., and James A. Palmore, "Desired Family Size and Contraceptive Use in Pakistan,"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5, No. 4, 1979.
- Warner, L.G., and M.L. DeFleur, "Attitudes as an Interactional Concept: Social Constraint and Social Distance as Intervening Variables Between Attitudes and 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4, 1969.
- Westoff, Charles C.F., "The Unmet Need for Birth Control in Five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and Digest*, Vol. 4 No. 1, 1978.
- Wicker, A.W., "Attitudes vs. Actions: The Relationship of Verbal and Overt Behavioral Responses to Attitudes Obj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5, 1969.

<Abstract>

An Analysis of Attitude and Behavior on the Family Size in KNFS, 1974

Byoung Mohk Choi* · Byung Tae Park*

We have been studying that ideal dimension and behavioral dimension of the family size for the desired number of children versus the living number of children are different between among the four groups the excess fertility group and non-excess fertility group women who want or do not want more children at the time of the survey.

Ou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ratio of women in Korea at the time of the survey who want more vs. do not want more children in the future was 3 : 7. The number of living sons also has an effect on the decision for future children.
- 2) The number of women of the excess fertility group and non-excess fertility group who want more children in the future are closely related to the women's age at the time of the survey and their years of marriage. This phenomenon is more striking in the non-excess fertility group than in the excess fertility group.
- 3)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the differences are clearly shown between the non-excess fertility group and the excess fertility group for prospected future births, and also it can be seen that the non-excess fertility group is more likely to have modernized characteristics than excess fertility group in respect to the socio-economic variables.
- 4) Next, which groups are likely to have unmet needs in family planning? We found that the excess fertility group is more likely to have unmet needs than the non-excess fertility group, especially among the women who want more children in the future.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limit the number of children desired among

* Researcher, KIFP.

the women in the excess fertility group who want no more children. (see distribution chart in Table 4 of contraception use, and the proportion of unwanted last pregnancies).

- 5) By the Coombs' preference scale these four groups have shown slightly over a moderate-size family (mean number preference scale: 4.4) and mild preferences for boys (mean sex preference scale: 5.4).

Those in the excess fertility group and who wanted no more children tended to show high fertility. On the other hand, the strongest "boy preference group" are those women in the excess fertility group and who want more children. Those in the group who do not want more children and those in the group who do want more children compare on a ratio of three to one in respect to the number of sons. It is undetermined if the women who continue to want more children know the necessity of family planning since they have not adopted use of contraceptives and do not show a strong psychic mobility to use contraception. It seems that the strong unmet needs of these women have not yet been reached in respect to their desired number of sons at the time of the survey. If the existence of strong boy preference continues steadily for these women, we can not expect a ready decrease in the fertility rate of Koreans in the immediate future.